

12월 3주  
죄의 도성 바벨론의 최후

-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8:1~5 (12월 18일 본문)
- **포인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때가 되면 모두 멸망하고 말아요.

1. 찬양

(새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2. 기도

하나님, 저희 가족이 예배 자리에 모였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세요.

3. 말씀

요한계시록 18:1~5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1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우리말 성경>

1 이 일 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습니다. 2 그가 \*우렁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다. 3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해 부를 쌓았기 때문이다.” 4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5 이것은 그녀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 ≡ 본문 이해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해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며 온갖 죄를 저지르는 곳을 상징해요. 멸망이 예정된 바벨론에 머물면 그곳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해요. 바벨론의 죄에 참여해 이익을 취하던 왕들과 상인들도 함께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 속히 그곳에서 나와야 해요.

###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본문에 언급되는 바벨론이라는 큰 성은 실제로 존재하던 곳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비밀스러운 표현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와 자기 쾌락과 욕심을 위해 비윤리적 사조를 조장하는 도시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바벨론이 욕심으로 쌓아 올린 부와 사치는 그들의 자랑과 교만이 되었고, 그들 주변에는 그 사치와 욕심을 이용해 돈을 벌며 이익을 취하는 상인들과 권력자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해낼 것 같았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자 그와 관련된 사람도 모두 망하게 되었어요. 요한은 죄악으로 가득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 있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죄와 짝하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해요. 결국에는 멸망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와야 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것들을 분별하고 멀리해야 하며, 세속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시대에서 하나님만이 참주인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만이 살 길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살아야 해요.

## ≡ 4. 나눔

1)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곳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소굴로 변해 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3, 5절)

### ■ 저학년

무너진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나요? (3절)

### ■ 유아, 유치

무너진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나요? (3절)

### □ 질문 가이드

바벨론은 죄악의 도성으로 멸망이 예정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를 찾아보세요(3, 5절). 크고 화려한 바벨론이 무너져 어떤 곳으로 변화되었는지도 살펴보세요(2절).

### □ 인도자를 위한 해설

바벨론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바벨탑(창 11:1~9) 정신이 구체화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부추기며 자기 욕심을 위해 비윤리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 바벨론은 결국 멸망할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음행, 교만(자기 영광), 사치,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이미 일어난 일처럼 “무너졌도다!”라고 생생하게 선포해요. 바벨론이 지금은 크고 화려하고 부와 사치로 교만함에 취해 있지만, 이는 영원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당할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바벨론이 누리는 부와 사치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해요.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거기서 속히 떠나야 해요. 죄악의 도성 바벨론은 때가 되면 반드시 멸망할 거예요.

2)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속히 떠나야 하는 자리(모임)는 어디인가요?

■ **저학년**

나를 죄짓게 만드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나의 행동이나 말은 무엇일까요?

■ **유아, 유치**

평소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모습이 있나요?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 **질문 가이드**

죄를 가까이하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곳에 있으려 하지 않는지 돌아보세요. 각자 자신이 벗어나야 할 죄의 자리는 어디인지, 습관처럼 굳어 버린 죄 된 행동이나 말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잘못된 말과 행실을 버리기로 다짐해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음을 방해하고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바벨론을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부를 누리고 사치하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의 세대는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우선시하며, 직접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진짜라고 믿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롬 12:2).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멈추고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길 바라요.

≡ **5. 감사하기**

죄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 **6. 기도**

하나님, 부를 쌓아 사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음란과 교만에 빠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해 주세요.

-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